



5월 13일 잠실 체육관에서 열린 '멈춤 그리고 치유' 주제 대중강연에서 틱낫한 스님과 플럼빌리지 법사단이 찬가를 하고 있다. 스님은 이날 설법으로 15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 “내면의 자비가 고통 치유의 근원”

### 틱낫한 스님, 13일 잠실 설법 2만여 대중 속속여 경청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면의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를 보고 들으려 할 때 치유도 시작됩니다. 우리 내면의 자비가 모든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근원입니다.”

단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의 틱낫한 스님의 법문이 흐른다. 2만여 대중은 숨을 죽였다.

5월 13일 잠실 체육관에서 열린 틱낫한 스님의 대중 설법, '멈춤 그리고 치유'를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는 15일 간의 틱낫한 스님 방한 일정의 대미였다. 그만큼 참가한 사부대중의 기대도 남달랐다.

강연에 앞서 성우 스님(불교TV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1년 6개월의 준비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참석한 분들이 세계적 석학 틱낫한 스님의 원력과 자비를 마음껏 마음속에 담아갈 빈다”고 밝혔다.

플럼빌리지 법사단의 유도명상과 예불이 진행되고, 이윽고 틱낫한 스님이 법상에 올랐다. 스님은 “나무관세음 보살”을 함께 독송함으로써 고통을 치유하는 것으로 법회를 시작하



틱낫한 스님이 2만여 대중에게 설법하고 있다. 이날 법회에서 스님은 남북문제는 핵무기가 아니라 두려움에 있으며 서로가 고통을 들여다 봐야한다고 역설했다. 법문 통역은 혜민 스님이 맡았다.

겠다”며 “여럿이 함께하는 독송에 깃든 자비한 기운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 줄테니, 내 옆, 앞, 뒤에 있는 사람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전 세계인들의 고통을 아우르는 마음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기간 동안 총 3만여 명과 만난 틱낫한 스님의 설법 핵심은 '치유, 상생, 행복'으로 요약된다. 현재 깨어있음으로써 마음챙김을 하면 내적으로 괴로움을 감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고통까지 치유할 수 있

다는 것. 즉, 서로 행복해지기 위해선 마음챙김이 필수라는 것이다.

이날 법문 또한 “불교가 남북한의 화해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관계가 비뚤어졌을 때 한쪽만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 남북 문제의 핵심은 핵무기야 아니라 우리 안의 두려움과 화”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부처님이 사성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고통을 들여다 본 후, 남북 간 깊이 듣고 자

롭게 말하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플럼빌리지에서는 자비롭게 듣는 수행이 있다. 그때 사람들은 상대의 고통이 줄어들었으면 한다는 오직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듣는다. 이런 식으로 플럼빌리지(틱낫한 스님이 프랑스에서 운영하는 수행공동체)에 방문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룹이 서로 화해할 수 있었다”고 조언했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틱낫한 스님의 법회는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박병희(59)씨는 “요즘 청소년들의 학교폭력과 자살 문제가 심각한데 스님의 말씀대로 고통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이 10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며 “틱낫한 스님 같은 정신적 멘토가 우리 사회에 절실하다”고 아쉬워했다.

강원도에서 군 복무 중인 이동건(22)씨는 “틱낫한 스님 책 《화해》를 읽고 군 생활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보살필 수 있었다”며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틱낫한 스님을 보기 위해 대중강연에 일부러 휴가를 내고 왔다”고 말했다.

한편, 틱낫한 스님은 이날 대중강연을 끝으로 약 2주에 걸친 공식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배현진 수습기자

### 틱낫한 스님 방한 15일, 현장 취재기

## 자애롭고 사소함 챙겨주는 스승

88, 10000, 40000. 이번에 한국에 방한한 틱낫한 스님과 관련한 숫자들이다. 왜 88세의 노스님은 10000km를 이동해 4만이 넘는 사람들과 만난 걸까.

스님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인터뷰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를 두고 온화하고 자애롭다 했다. 태교를 위해 스님의 법문을 듣고자 잠실체육관을 찾았다는 임신부만 봐도 알 수 있다. 월정사 수행에 함께 참여한 부모도, 중년을 넘

긴 자매도, 엄마와 아들도, 종교가 없는 사람도, 수녀님도 스님의 따스한 너그러움을 느끼고자 참석한 이들도. 이렇게 틱낫한이라는 이름에 담긴 강한 자력은 성별과 세대, 종교를 아우른다. 깨달음을 얘기하는 대신 현실의 사소함을 챙겨주는 스승이라니 어찌 거리를 마다할까.

불교라는 멋진 종교를 일상에 녹여낼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현대사회에 맞게 불

교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스님의 노력은 용어에서 빛을 발한다.

연기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연결된 존재(Interbeing)'라는 단어를 만드는가 하면, 질 수행에 생소한 이들을 위해 '지구와 접하기(Touching the earth)'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플럼빌리지 구성원들의 80% 이상이 비불교도인 것도, 한번 명상을 할 때마다 참석자들이 1200명에 달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 덕분이다.

틱낫한 스님은 침착한 눈빛과 단정한 걸음 걸이를 통해서도 스님은 평화의 기운을 발산한다. 거기서 사람들은 울림을 얻는다. 수행자의 얼굴만 봐도 불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틱낫한 스님 말 그대로.

우리는 사실 감정에 반응하기만 할 줄 알았지 이와 제대로 어울릴 줄 몰랐다. 스님은 감정에 서툰 이들을 훈계하지도, 욕박지르지도 않고 다만 도닥일 뿐이다. 동시에 통찰력있는 해안으로 지혜를 전해준다. 그 해안은 틱낫한 스님의 법문에서 임버릇처럼 이야기하듯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에 기인한다. 모든 것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풀어낸다.

틱낫한 스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도 먼 옛날, 불법을 구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한 옛 선사들과 다르지 않았다. 해외 곳곳에 큰 가르침을 전한 승산 스님과 대행 스님도 떠난 지금, “우리의 승단을 돌아보게 된다”고 말하는 이가 있었다.

배현진 수습기자

### 정념 스님 “불교, 문명의 대안 되려면”

### 틱낫한 스님 “시대의 고통에 응답해야”

#### 15일 방한 기간 중 한국 스님들과 대담

틱낫한 스님의 15일의 방한 일정 중에는 한국 스님들과의 대담도 이뤄졌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는 불교의 미래상과 승가교육의 변화 방안을, 뉴햄프셔대 교수 헤민 스님과는 한국 사회의 병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각각 이야기했다.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은 5월 6일 월정사 연화실에서 이뤄진 주지 정념 스님과의 대담. 사전 약속없이 진행됐지만 일불(一佛) 제자로 한번쯤은 고민했을 주제들의 이야기가 오갔다.

정념 스님은 “현대 정보문명사회이고 이에 따라 삶의 문화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불교도 이에 맞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새로운 문명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첫 질문을 던졌다.

틱낫한 스님의 답변은 명증했다. 스님은 “(스님들을)가르치는 방식과 수행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존재하는 새로운 종류의 고통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플럼빌리지의 다양한 수행법을 설명하며 “우리 시대의 독특한 고통이 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 폭력적이다”라며 “이런 것에 응답할 수 있는 불교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고통을 덜 수 있는 가르침과 수행으로 내용을 바꿔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념 스님은 간화선과 기도도 규결되는 한국불교의 사부대중의 수행과 이로 인해 대중과 괴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타계책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틱낫한 스님은 “젊은 세대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가르침과 수행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상의 고통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에 진행된 불교TV에서 진행된 뉴햄프셔대 교수 헤민 스님과의 대담에서도 틱낫한 스님은 한국불교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한국사회에 감로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높은 것에 대해 화와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들이 많다고 지적한 스님은 “한국불교가 호흡 등의 명상을 통해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감정들을 가라앉힐 수 있는지

###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승가 교육방안 등 토론 헤민 스님과 불교TV서 사회 병폐 해법 이야기

가르치고 대화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모든 존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이는 가족, 남북관계에 모두 적용된다”며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 서로가 불가분 관계 속에 있음을 자각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틱낫한 스님은 한국 불자들에게 “불교는 어려운 교리나 수행이 아니다. 바로 지금 행복 한 것이 진정한 불교”라며 “긴장을 풀고 걷기 명상과 호흡 등을 통해 자신이 바로 지금 더없이 행복한 존재라는 걸 자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5월 6일 대담을 위해 월정사 연화실로 향하는 틱낫한 스님과 주지 정념 스님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교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알기 쉬운 **수강생모집**

# 구단구궁법

**특**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 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으로 짠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li> <li>■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li> <li>■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li> <li>■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li> <li>■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li> </ul>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대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